



군종주보

2021년 7월 25일(제1045호) 연중 제17주일(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니 마음의 양식”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탈출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강제 노동과 억압에서 벗어나 광야로 탈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풍족한 식량과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만나를 거두어들일 때, 더러는 더 많이, 더러는 더 적게 거두어들였지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탈출 16, 17-18)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충분히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하느님과 성조들의 계약이 실현됨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 인간들의 불평과 불만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들고 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분명 오천 명이 넘는 군중이 좁쌀만한 크기로 떼어먹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웠고, 설령 군중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원성 가득한 원망만 들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향한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탈출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과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맺으신 계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성찬례를 통해 받아 모십니다. 주님의 몸인 성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영혼의 메마름을 없애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군중이 느낀 배부름보다 더 큰 배부름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배부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불평과 불만 가득 섞인 말을 할 때도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는 광야의 길을 건너더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심은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끝없이 펼쳐져 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나를 먹고도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성체를 모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요한 6,58) 우리가 그토록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랑이 가득 담긴 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신 성체를 정성되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신 성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하느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최연수(리티노) 신부
민포대(2표대시명부)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2열왕 4,42-44
회 답 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 시 에페 4,1-6
복음 본보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요한 6,1-15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이홉 번째 시한

우리가 조선 국경에 도달하였을 때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아직도 8일이 흘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루해 보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약속된 신호로 조선 교우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대면하고 싶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슬프다! 이 백성들은 아직 외국인을 귀찮게 여기고 무서워하며 나라에서 내쫓아야 할 원수로밖에 여기지 않는 아주 비참한 야만 상태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처가 없고 며칠 동안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서 목인되었다면 저를 중국인으로 여긴 때문일 것이고, 제가 잠시나마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면 저를 외국인으로 여긴 때문일 것입니다. 아아, 인류 대가족의 공동의 아버지인 성부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그의 사랑 안에 모든 자녀들을 품으실 날이 언제나 올까요?

주교님께서는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지나게 될 지방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주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저 자신이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보고, 조선의 서당에서 지낸 저의 어릴 적의 기억들을 더듬기도 하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교님께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방의 본래의 만주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양 지도에서보다 훨씬 넓지 못한 땅에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북위 46도 이북으로는 거의 살지 않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몽고와 갈라놓는 장책(長柵)과 송화강이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우긴’(Ou-kin)과 ‘유피타체’(Ju-pi-tatse, 魚皮韃子)라는 달단인들의 두 작은 나라가, 동쪽은 일본해, 그리고 남쪽은 조선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로 그들의 나라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광대한 산림이 그 땅의 일부를 덮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의 주둔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모여 사는 소수의 달단인 가족들도 이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면 그 가족들은 황제의 비용으로 부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걸로 어찌라고



이걸로
뭘 어떻게,
어찌라고....

그래
이걸로
어떻게
해보렵니다.

가당치
않아 보이나.

이걸로,
어찌
해보렵니다.

상화이야기

성모지와 성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1503년경 제작
 나무 위 유화, 168×112cm / 피리 르부르 박물관, 프랑스

이 그림은 다빈치의 미완성 작품으로 어린 양을 잡고 있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모님의 어머니인 안나 성인이 함께 그려져 있다. 일견 세 인물이 굉장히 조화로워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바위)산에 안나 성인이, 그리고 안나 성인의 무릎에 성모님이 앉아 계시는 자세라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묘사는 굉장히 독특한 것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도 미궁이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은 서로 마주 보고 계시며, 이러한 모습을 성안나가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다. 성모님보다 더 큰 크기로 그려진 성안나의 모습은 아마도 모녀간이나 모자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애초에 이 그림은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주문했던 그림이라고 한다. 어찌 되었든, 뒷배경 속 회색빛 산, 붉은빛의 돌산에 앉아 있는 세 인물과 이들의 표정이 조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 다빈치만의 신비로운 느낌이 가득한 작품이다. 오늘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우리의 조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연무대 김영송 신부

◆ 교구장 동정

- 군별 화상회의

- 때: 7월 25일(주일) 16:00, 공군
- 28일(수) 16:00, 저작사 1지구
- 30일(금) 16:00, 저작사 2지구

- 국장회의

때·곳: 7월 27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신부(神父)의 책장’ 인니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립
- 매주 수·금요일 저녁 8시
- 시즌 1 도서 내용 다시 듣기(6.30~7.30)
- 시즌 2는 8월 4일(수)에 다시 찾아옵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